

영조대 후반 왕실여성들의 정치적 행보와 역할

이 미 선*

- I. 머리말
- II. 왕실여성 측근 세력의 反世子·世孫 활동
 - 1. 정순왕후 김씨의 왕위 계승 개입과 南黨 후원
 - 2. 화완옹주·숙의 문씨 측근 세력의 합종연횡
- III. 혜경궁 홍씨의 궁중 내 인맥 연계와 막후 활동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영조 후반에 주목되는 왕실여성 4명의 정치적 행보와 역할을 살펴본 글이다. 왕비 정순왕후 김씨는 南黨 측이 세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甲申處分 이후에는 왕세손이 왕위에 오르는 데 협찬했다. 그녀의 행보는 父子 사이를 이간질해온 화완옹주[鄭妻]와 숙의 문씨[文女]의 역할이 한몫했다. 정치와 문녀는 각각 정후겸과 문성국을 내세워 양 척신이나 세자·세손 음해 세력과 합종연횡하면서 상황에 따라 정치 노선을 달리했다. 세 명의 왕실여성은 반세자·세손의 행보였다.

혜경궁 홍씨는 세손 보호에 적극적이었다. 세손과 영조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을 심어놓았고, 친정 집안과 경주 김씨·연일 정씨 집안을 연결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 연구교수 겸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객원교수 / roovi-lee@hanmail.net

주는 교섭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정순왕후와 혜경궁 홍씨의 행보는 성공적이었다. 정순왕후는 사도세자를 폐위시키고 북당의 정권을 와해시켰고, 혜경궁 홍씨는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친정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반면 정처와 문녀의 행보는 성공 반, 실패 반이었다.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매우 컸다.

◆ 주제어 _____

정순왕후 김씨, 혜경궁 홍씨, 鄭妻, 文女, 甲申處分

I. 머리말

영조 후반에는 정국 변동과 정치세력의 분화가 있었고 이로 인한 정과 간의 갈등이 더욱 다양하게 격화되었다. 당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이 東黨·南黨·中黨·北黨 등의 세력으로 분화되었고, 특히 당대의 양 척신 세력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대립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甲申處分 이후에 정국은 북당인 洪鳳漢·洪麟漢 세력과 남당인 金漢耆·金龜柱 세력 사이의 주도권 다툼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에 더해 和緩翁主[鄭妻]를 등에 업은 소론 鄭厚謙과 후궁 숙의 문씨[文女]·文聖國의 동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¹⁾ 이들 척신 세력은 각기 입장과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당파의 정치세력과 합종연횡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²⁾ 이러한 친인척 세력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그 배후에 각기 정순왕후 김씨를 비롯해 혜경궁 홍씨, 화완옹주, 그리고 숙의 문씨 등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궁궐 안에서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를 이간질한 사람은 단연 영조의 딸 화완옹주와 후궁 문씨였다. 이 당시 화완옹주와 양자 정후겸은 세자 폐위 세력인 노론 탕평당 金尙魯, 洪啓禧 등과 결탁하여 父子의 갈등을 조장했고, 후궁 문녀와 친오빠 문성국 역시 凶言과 이들 세력과 연결하여 이간 행위를 통해 세자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 지위를 흔들었다. 주목되는 점은 영조의 갑신처분 이후에 이 세력들의 일부가 壬午禍變 전후로 사도세자·세손 父子를 위협하는 세력에서 세손을 보호하는 세력으로 그 정치적 입장을 선회하였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여성이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전근대 시기라 하여도 한 나라의 최고위층의 왕실여성이라는 지위가 정치와 전혀 무관할 수만은 없었다. 영조 후반에 국왕의 후계자인 사도세자가 폐위된 후 뒤주 속에 갇혀 죽

1) 이근호, 「18세기 후반 혜경궁 가문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조선시대사학보』 74, 조선시대사학회, 2015, 49쪽.

2)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외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42~64쪽; 74~106쪽.

음을 당한, 임오화변이 발생하였다. 임오화변은 국왕과 노론의 남당, 북당계 및 소론 탕평당계 주요 신료와 金漢耆·김귀주와 홍인한 등 내·외척 세력이 공모하여 일으킨 정치적인 사건이자³⁾ 친부모가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게다가 죄인의 아들인 세손의 왕위 승계를 놓고 외척세력 간에 정치적 부침을 하면서 왕실여성들은 거기에 초연할 수 없었다.

이 시기에 왕실여성들 생애의 궤적을 당시의 정치 상황의 전개 속에서 조망하여 탐색해 보려는 노력은 많지 않았다. 이 시기 왕실여성들의 정치적 행보가 엿보이는데, 정조 초반 僻派와 時派로 나뉘질 중전 정순 왕후 김씨와 세자 빈궁인 혜경궁 홍씨, 화완옹주, 그리고 숙의 문씨는 당시 당쟁의 운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영조 연간에 관한 연구는 탕평 정국 운영방식에 대한 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⁴⁾ 특히 척신 세력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 홍봉한-홍인한(북당)과 김한구-김귀주(남당)의 구도로 언급된 사실이 주목되었다.⁵⁾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영조 후반 왕실여성들의 정치적 행보와 역할에 주목하여 정순왕후 김씨와 혜경궁 홍씨, 화완옹주와 숙의 문씨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영조 후반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인 임오화변과 갑신처분 그리고 세손의 대리청정 등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각기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 그녀들의 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 양상 및 활약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최성환, 앞의 논문(2009a), 54쪽.

4)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근호, 「영조대 탕평과의 국정운영론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최성환, 「영조대 후반의 탕평정국과 노론 청론의 분화」, 『역사와 현실』 53, 한국역사연구회, 2004; 김정자, 「영조말~정조 초의 정국과 정치세력의 동향-영조 46(1770)경~정조 원년(1777)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4, 조선시대사학회, 2008.

5) 박광용, 앞의 논문, 1994; 최봉영, 「임오화변과 영조말·정조초의 정치세력」,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II. 왕실여성 측근 세력의 反世子·世孫 활동

1. 정순왕후 김씨의 왕위 계승 개입과 南黨 후원

정순왕후는 정조의 대를 이을 왕위 계승 문제에 적극 개입하였고 정조 연간 사도세자의 아들 恩彦君을 역적의 괴수로 몰아 토벌에 앞장설 만큼 크나큰 정치적 역할을 했던 여성이다.⁶⁾ 처음에 그녀는 왕위계승자인 세자와 그 뒤를 이을 세손의 지위를 위협하고 자당인 南黨을 후원하는 명실공히 세자·세손 父子를 음해하는 세력의 후원자였다. 주목되는 사실은 그녀가 갑신처분 이후에 이들에게 대립했던 노선을 수정해 왕세손이 왕위에 오르는 데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그녀의 집안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정순왕후는 1745년(영조 21) 11월 10일에 충청도 서산에서 金漢耆와 原豐府夫人 元氏의 딸로 태어났다. 1757년(영조 33) 2월에 영조의 정비인 貞聖王后가 승하하자⁷⁾ 2년 후인 1759년(영조 35) 15세에 영조의 계비가 되었다.⁸⁾ 친정인 慶州金氏 가문은 인조 연간 충청도, 황해도관찰사를 지낸 鶴洲 金弘郁의 대에 이르러 그의 충직함이 조정에 드러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⁹⁾

5대조 김홍옥은 1646년(인조 24)에 사사된 소현세자빈 姜嬪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상소했다가 1654년(효종 5)에 杖殺되었다.¹⁰⁾ 김홍옥의 큰형 金弘翼은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가던 중 險川 전투에서 순절하였다. 김홍옥은 1718년(숙종 44) 이조판서에 추증

6)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2009, 126쪽.

7) 『영조실록』 권89, 영조 33년 2월 5일(정축).

8) 『영조실록』 권93, 영조 35년 6월 9일(무오); 『영조실록』 권93, 영조 35년 6월 22일(신미); 『승정원일기』 65책, 영조 35년(1759) 6월 2일(신해); 『승정원일기』 65책, 영조 35년(1759) 6월 4일(계축); 『승정원일기』 65책, 영조 35년(1759) 6월 9일(무오).

9) 양웅렬, 『조선의 왕비 가문』, 역사문화, 2014, 239~242쪽.

10) 『효종실록』 권13, 효종 5년 7월 17일(갑진).

되었고, 영조대에 旌閭되어 사림의 추앙을 받았다.¹¹⁾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禁錮의 처분이 내려진 이 집안은 선조들이 문과 급제를 하지 못하는 등 중앙정계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실제로 고조 金季珍은 黃澗縣監을 지냈고, 증조 金斗光은 일찍 죽었으며 조부 金選慶 역시 木川縣監을 지냈을 뿐이다. 다만 주목되는 점은 충청도 지방에 근거를 둔 이 집안이 학문적으로 능력을 갖춘 ‘山林家門’이었다는 사실이다. 김한구의 사촌형 金漢祿은 영조의 탕평책을 강하게 비판하던 호서지역 산림 韓元震의 문인이었다.¹²⁾

이 집안의 성세는 숙종대에 김홍옥이 복관되고¹³⁾ ‘文貞’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이후부터였다.¹⁴⁾ 김홍옥의 증손 金興慶 때부터 가세 역시 회복되었다. 김홍경은 1735년(영조 11) 영의정에 올랐고 그 아들 金漢薰은 영조의 장녀 和順翁主와 혼인해 부마가 되었다. 무엇보다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를 배출하면서 이 집안은 비로소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김홍옥의 후손들은 대체적으로 노론계 인물들이며¹⁵⁾ 노론 벽파의 정치적 입장을 가졌다. 정순왕후 왕비 간택에 혜경궁 홍씨의 부친 홍봉한의 역할이 작용했는데,¹⁶⁾ 이는 사촌형 洪象漢이 국혼 행사에 提調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두 집안 간의 혼맥을 보더라도 정순왕후의 외조부 元命稷은 洪鉉輔와는 6촌간이며 홍봉한의 장녀와 김한구의 처외조모는 사촌 자매간이었다. 원명직의 고모부 權尙遊는 송시열의 문인 權尙夏의 동생이다.¹⁷⁾ 15세 어린 김씨가 왕비에 올랐을 때 부

11) 『영조실록』 권54, 영조 9년 9월 14일(임진).

12)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한중록』, 이회, 2008, 197쪽; 유봉학, 「18·19세기 노론학계와 산림」, 『한신논문집』 3, 한신대학교 출판부, 1986, 28쪽.

13) 『숙종실록』 권61, 숙종 44년 3월 25일(갑술).

14) 金龜柱, 『可庵遺稿』 권34, 「先祖考贈領議政府君行狀」; 成均館大學校大同文化研究院編, 『可庵遺稿』,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557쪽. “孝廟朝 上疏訟昭顯嬪姜氏寃遂死桁楊下 因尤菴 同春兩宋先生迭奏伸白 復其官 後贈吏曹判書諡文貞.”

15) 임혜련, 「19세기 수렴청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11쪽.

16) 권오영, 「金漢祿(1722~1790)의 사상과 정치적 驛程」, 『조선시대사학보』 33, 조선시대사학회, 2005.

모는 물론 조부 김선경도 생존해 있었다.

영조와 혼례를 치르고 그녀가 입궐하였을 때 조정은 소론에 동조하는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다. 대리청정은 사도세자의 나이 15세인 1749년(영조 25)부터 이루어졌다. 당시 정국은 영조와 정국을 주도한 노론 외척당 및 이를 견제한 청류당 계열의 갈등 속에 혼돈된 상태였다.¹⁸⁾ 소론을 지지하는 사도세자가 왕세자로 있는 이상, 노론의 처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 속에서 노론은 외척당이 된 경주 김씨 정순왕후를 구심점으로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였는데, 자당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그 첫 번째 계획은 바로 김귀주를 통한 사도세자의 비행과 평양행 폭로였다. 평안도 여행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극비에 붙여진 사건이다.¹⁹⁾

정순왕후가 입궐한 지 2년 뒤인 1761년(영조 37) 4월 봄에 사도세자는 시종들과 세자빈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안감사 鄭翬良의 감언에 따라 평양으로 떠났다. 정순왕후의 친오빠 김귀주는 영조에게 폭로성 내용을 담은 <신사년>封書を 은밀히 올려 좌의정 홍봉한, 우의정 정휘량을 포함한 영조의 측근 탕평파 전체를 공격하고 나섰다. 애기인즉슨, 노론 홍봉한은 세자의 비행과 평양행에 비판하지 않았고 소론 정휘량은 영조에게 아뢰지 않았다는 것이다.²⁰⁾ 이 봉서는 단순히 홍봉한을 비판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세자의 폐위를 꾀하는 시도였다. 이는 이 일을 두고 혜경궁 홍씨가 ‘세자의 失德을 폭로한 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거나²¹⁾ 정조가 신사년 봉서를 ‘김귀주 罪案의 핵심’이라 생각한 사실에서 확인된다.²²⁾ 당시에 혜경궁 홍씨로부터 비판받아온 김귀주는 왕세손의 위치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정조 즉위 직후에 혜경궁에게 문

17) 양용렬, 앞의 책, 2014, 240~241쪽.

18) 박주, 『조선왕실여성들의 삶』, 국학자료원, 2018, 44쪽.

19) 박광용, 앞의 책, 127쪽.

20)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98쪽. 박광용, 앞의 책, 112쪽.

21)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98쪽.

22) 『정조실록』 권18, 정조 8년 8월 8일(신묘).

안을 드리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죄목으로 흑산도에 유배되었다.²³⁾ 당시에 영조조차 봉서의 내용에 놀라 정순왕후에게 김귀주를 걱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은 정조와 그 측근들의 주장일 뿐, 김귀주는 당시 스무 살 전후의 어린 나이인 데다 아직 과거에 합격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해 본다면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김귀주가 비밀에 부쳐진 사도세자의 평양행을 알게 된 것은 순전히 그 배후에 왕비 정순왕후를 통해서였음이 더 크다고 하겠다. 김귀주가 쓴 봉서의 내용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세자의 평양행을 알려준 배후 인물로 정순왕후라 생각해 볼 때, 분명 그녀는 왕위 계승 문제에 개입한 것이라 판단된다.²⁴⁾

노론 집권당의 바람대로 이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여동생 정순왕후의 정치적 후광을 업은 김귀주는 세자의 평양행과 비행 문제를 공론화시켜 세자를 잘못 보도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함으로써²⁵⁾ 세자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²⁶⁾ 결국 이 일로 1762년(영조 38) 윤5월 13일에 자결하라는 영조의 명을 받은 사도세자가 창경궁 徽寧殿에서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굶어 죽게 되었다.²⁷⁾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있을 때 반세자 세력들은 '嬉笑雀躍'하며 11字 凶言을 주고받았고, 병조판

23)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9월 9일(정축).

24) 정순왕후가 왕위 계승에 개입한 모습은 정조 초반에도 포착된다. 1780년(정조 4) 2월에 대신들에게 내린 정순왕후의 한글 교서에서, 중전 효의왕후가 질병 때문에 후사를 얻을 수 없으니 하루빨리 비빈을 간택하여 후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였다. 이때 그녀는 洪國榮과 결탁하여 왕실 후계 문제에 개입한 恩彦君 李綱과 그의 아들 常溪君 李湛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정조의 동의 없이 내린 정순왕후의 이 결정으로(박광용, 앞의 책, 2009, 128쪽), 효의왕후의 친척인 金致默은 함부로 병이 있다고 단정 짓지 말라고 반발하였다(『정조실록』 권9, 정조 4년 4월 14일(임술).)

25) 『영조실록』 권97, 영조 37년 4월 초2일(신미); 『영조실록』 권97, 영조 37년 4월 16일(을유); 『영조실록』 권98, 영조 37년 9월 20일(을묘).

26) 『영조실록』 권98, 영조 37년 9월 20일(을묘); 『영조실록』 권98, 영조 37년 9월 21일(병진); 『영조실록』 권98, 영조 37년 10월 9일(갑술).

27)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윤5월 13일(을해).

서 金陽澤의 주선으로 한강의 三浦에서 뱃놀이를 하며 폐세자 성사를 자축했을 정도였다.²⁸⁾

임오화변이 발생한 후, 조정에서는 경주 김씨와 풍산 홍씨 양 척신 세력이 각기 이권 다툼을 벌이며 서로 간에 정적이 되었다. 지금까지 노론과 소론 당파 간으로 벌어지던 당쟁이 영조의 처가인 경주 김씨와 사돈 집안인 풍산 홍씨, 외척 간의 싸움으로 변질된 것이다.²⁹⁾

실권을 장악하던 북당 홍봉한에 대한 남당 김귀주의 압박은 곧 일어났다. 외척 두 집안 간의 싸움은 노론 청류 세력과 연관된 韓鑰의 두 번에 걸친 상소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김귀주는 1763년(영조 39) 문과에 급제한 후 본격적으로 관직에 진출해 영조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이는 그 이듬해 2월에 세손을 데리고 홍문관 앞을 지나다가 홍문관 교리인 그를 친히 불러 세손과 가깝게 지낼 것을 당부하고 세손에게도 친구처럼 대할 것을 명했던 모습에서 알 수 있다.

1770년(영조 46) 3월에 청주에 사는 유생 한유가 도끼를 들고 궐문 앞에서 ‘임금을 속이고 권세를 마음대로 하는 정승[鹿馬相]’ 홍봉한을 참해야 한다는 한통의 소장을 올렸다.³⁰⁾ 그 배후를 의심한 영조는 한유를 처벌하면서 홍봉한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黑頭奉朝賀로 치사하도록 했다.³¹⁾ 이후에도 홍봉한을 제거하려는 자들의 사주를 받은 그는 극히 민감한 뒤주[一物]를 들인 홍봉한의 죄를 또다시 거론하며 죽여야 한다고 상소했다.³²⁾ 그러자 영조는 이번엔 혜경궁과 세손을 생각해서라도 홍봉한을 처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저버릴 신하도 아니라고

28) 『정조실록』 권34, 정조 16년 윤4월 27일(을미); 김용흠 외 역주, 『사도세자의 죽음과 그 후의 기억』 『玄臯記』 번역과 주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237쪽.

29) 『영조실록』 권119, 영조 48년 7월 21일(갑인); 『영조실록』 권119, 영조 48년 7월 23일(병진); 『영조실록』 권119, 영조 48년 7월 29일(임술).

30) 『영조실록』 권114, 영조 46년 3월 21일(무술); 『영조실록』 권114, 영조 46년 3월 22일(기해).

31) 『영조실록』 권114, 영조 46년 3월 27일(갑진);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2008, 206쪽.

32) 『영조실록』 권117, 영조 47년 8월 2일(경오); 『영조실록』 권117, 영조 47년 8월 3일(신미); 『영조실록』 권117, 영조 47년 8월 5일(계유).

변호하며 적당한 선에서 사건을 빨리 수습하였다.³³⁾

홍봉한이 물러난 후에도 그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경주 김씨 집안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김한기 등이 공작한 홍봉한의 왕손 추대 음모를 고변한 일이 그 한 사례이다. 이 일은 세손이 영조를 隨駕하지 않은 틈을 타 숙부 김한기가 영조에게 홍봉한이 세손을 제거하고, 대신 사도세자의 서자인 恩彦君 李禕를 추대하려고 한다면서 은언군과 恩信君 李禕를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홍봉한에 대한 영조의 의구심이 커져갈 무렵에 발생한 이 고변은 홍봉한이 세손 대신에 다른 왕손을 택군하려는 모습으로 영조에게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결국 영조는 홍봉한이 그들의 방자함을 조장했다고 하면서 은언군과 은신군을 유배 보냈고³⁴⁾ 홍봉한을 청주에 부치하였다가³⁵⁾ 혜경궁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철회하였다.³⁶⁾ 이때 홍봉한과 함께 처벌받은 사람은 세손의 장인 金時默과 홍봉한의 5촌 조카 洪樂性도 끼어 있었다.³⁷⁾

사태가 재빠르게 진정되었지만, 상황은 긴박했다. 한밤중에 창의궁으로 거동한 영조는 대궐문을 닫고 호위대장 수어사 김한기에게 군사를 모아 대궐과 창의궁을 호위하도록 하였고 홍봉한과 김시묵은 석출하였다. 이 일은 분명 홍봉한과 풍산 홍씨 집안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를 수습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순왕후였다.³⁸⁾

사실 김귀주는 홍봉한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한 왕손 추대 음모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홍봉한의 實罪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봉한의 죄란 1766년(영조 42) 영조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최고 품질의 羅蓼과 松茶를 쓰지 않고 싸구려 인삼을 사용하여 영조를 위태롭게 했고, 최근에는 사도세자 추송 문제로 세손을 懇囑하고 강요하며 국본을 흔들

33) 『영조실록』 권117, 영조 47년 8월 8일(병자).

34) 『영조실록』 권116, 영조 47년 2월 3일(갑술).

35) 『영조실록』 권116, 영조 47년 2월 9일(경진); 김용흠 외 역주, 『충역의 시비를 정하다』 『定辨錄』 역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36쪽.

36) 『영조실록』 권116, 영조 47년 2월 11일(임오).

37) 『영조실록』 권116, 영조 47년 2월 5일(병자).

38) 『영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9월 12일(경진).

었다는 것이다.³⁹⁾ 그에 따르면 이것은 ‘임오의리를 顛覆하기 위해’ 계획한 사안이므로 영조를 위태롭게 할 만큼 불충한 처사라는 주장이었다.

홍봉한에 대한 영조의 의구심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 김귀주는⁴⁰⁾ 정순왕후와 이를 상의하였다. 이들과 협의를 거친 정순왕후는 封書를 작성한 뒤에 김한기에게 준비된 봉서를 보내고 이후 적절한 시기에 김한기로 하여금 영조에게 袖箭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당시 암암리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홍봉한이 이미 덕종의 사례를 들어 세손에게 추숭을 권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론, 남인 일각에서 추대를 거행하고자 할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논의했다는 설이다.⁴¹⁾ 이때 정순왕후를 찾아간 세손은 홍봉한이 은신군과 은언군을 추대한 적이 없고 혜경궁이 투신을 시도하다 낙상했다고 해명하며 간곡히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⁴²⁾ 이 사건은 분명 홍봉한과 풍산 홍씨 집안에 타격을 입힐 만큼 당시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손의 설득에 따른 정순왕후의 판단 결과 홍봉한을 삭출시키는 데 그친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정순왕후가 아무 조건 없이 세손을 도와준 것은 아니었고, 세손에게 추숭 문제에 대한 다짐을 받고서 사태를 무마해준 것이다.⁴³⁾

그녀가 왕세손을 도와주는 모습은 세손의 대리청정을 성사시켰던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임기 말년에 판단력이 극도로 흐려진 영조는 통치의 한계를 절감하여 세손의 대리청정을 지시했다. 그러나 좌의정 홍인한이 三不必知說을 내세워 세손의 대리청정을 반대했다.⁴⁴⁾ 이에 조정에서는 대리청정에 관한 의논조차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⁴⁵⁾ 대리청정이 지체되

39) 『영조실록』 권119, 영조 48년 7월 21일(갑인); 김용흡 외 역주, 앞의 책, 2016(b), 40~41쪽.

40) 『寒澗先生文集』 권37, 「鰲興府院君贈領議政金公神道碑銘」; 金漢祿 著·韓國文集編纂委員會 編, 『寒澗先生文集』 6, 경인문화사, 1993, 311쪽. “常以鳳漢之專權 濁亂陰懷凶圖爲深憂 常曰彼之謀危聖躬 無他也 將欲顛覆壬午義理 恣行其胸臆耳.”

41) 최성환, 앞의 논문(2009a), 84쪽.

42) 黃胤錫, 『頤齋亂藁』 3책,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543쪽; 550쪽. “又聞頃日洪相付處後 惠嬪宮焦悶自投于地 因成落傷 自上特命有還.”

43) 최성환, 앞의 논문(2009a), 84쪽.

44)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35쪽.

고 있는 상황에서 세손은 조정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물색해 상소를 올리도록 조치한 동시에 정순왕후에게 또다시 도움의 손짓을 보냈다.⁴⁶⁾ 물론 왕세손의 대리청정은 홍국영, 정민시 등 공료의 활약을 배경으로, 서명선의 홍인한 탄핵 상소를 계기로 성사된 것이다.⁴⁷⁾ 하지만 세손에 대한 정순왕후의 믿음으로, 그녀가 영조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협찬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순왕후가 반세자의 계획에 동조했다가 세손을 보호해주고 협조해 준 이유는 정순왕후 자신의 안위와 보장된 대비의 위상을 확보 받기 위함이었다. 처음에 그녀는 사도세자 폐위와 세손 왕위 방해를 표방하는 남당 세력의 후원자였다가 세손의 정치적 행보에 협조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조의 확고한 세손 보호 의지와 외가인 풍산 홍씨 집안의 보존 의사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정순왕후는 자당인 노론 측의 계획에 협조해 사도세자를 사사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 왕세손의 즉위는 그녀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왕비의 지위에 있었지만, 왕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정순왕후의 안위 보장은 불투명하고 담보되지 않았다. 왕세손보다 겨우 7살이 더 많은 법적인 할머니에 불과한 그녀는 허울뿐인 신세로 전락할 터였다. 영조가 세손을 보호하고 세손 외가 풍산 홍씨의 보존 의사를 밝힌 이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래에 대해 그녀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향후 자신의 존망과 관계되는 문제였기에 그녀는 두 차례의 한유 상소와 왕손 추대 사건의 순조로운 사건 마무리를 요청한 왕세손의 부탁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둘 관계는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45) 『영조실록』 권125, 영조 51년 11월 20일(계사); 『영조실록』 권125, 영조 51년 11월 30일(계묘).

46) 『明義錄』 卷首, 「尊賢閣日記」 下, 22쪽; 이이화, 『朝鮮黨爭關係資料集』, 驪江出版社, 1983, 496쪽.

47) 『영조실록』 권126, 영조 51년 12월 3일(병오).

더 나아가 사도세자의 서자 恩全君 李禕을 양자로 삼아 후일을 도모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임오화변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후사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후사가 정해지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조정에서는 은전군이 세손을 포함한 三王孫에 비해 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세간에도 중궁이 이찬을 기르고 김귀주가 옹립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었다.⁴⁸⁾ 이는 아직 출합하지 않은 14살 은전군만이 중궁전의 愛育을 크게 받고 있다고 하거나⁴⁹⁾ 은전군의 어미 박씨가 죽은 뒤 연못에 버려진 그를 정순왕후가 幼名을 荷葉生이라 부르며 돌보아 은밀하게 易樹推戴의 계책을 세웠다고 한 사실에서 확인된다.⁵⁰⁾ 혜경궁이 지은 『한중록』에서도 정순왕후의 친정 집안에서 양자를 정하여 저희가 외가 노릇을 하려고 했다고 회고하였다.⁵¹⁾

왕비 정순왕후가 노론 남당측이 세운 계획에 동조한 또 다른 이유는 친정을 보호하고 가문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노론의 남당 경주 김씨 집안은 임오화변 전후로 반세자, 반세손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숙부 김한록과 오빠 김귀주는 임오화변 전후로 반세자·세손의 흥론을 주창해 온 바⁵²⁾ 특히 16자 흥언(罪人之子 不可承統 太祖子孫 何爲不可)으로, 世孫不可論=養子論을 제기하며 여론을 조성하였고⁵³⁾ 나경언 고변 이후엔 김한구가 麟坪大君의 후손 李鎭翼을 추대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⁵⁴⁾ 이진익은 인평대군의 4대손으로 흥선대원군의 고조가 된다. 이처럼 줄곧 세자의 자질을 거론하며 종사를 위한 세자 교체를 모색하고 ‘죄인지자’ 반대 및 ‘양자론’을 설파했던 만큼⁵⁵⁾ 그녀의 친정 집안은

48) 김용흠 외 역주, 앞의 책(2015a), 232쪽; 280쪽.

49) 黃胤錫, 『願齋亂藁』 4책,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8, 64쪽. “三王孫之中 惟恩全君未出閣 今年十四 大被中宮愛育.”

50) 黃胤錫, 『願齋亂藁』 8책,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2, 431쪽. “聞逆讞 己卯生三日而 其母朴氏死又棺鋸 渠又被刃 見投于門外池中 其時今大妃在中宮 急令人視之 則擡在池中荷葉上 呱呱不死 大妃神之 射幼名曰荷葉生.”

51)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99쪽.

52) 김용흠 외 역주, 앞의 책, 2016(b), 107쪽; 권오영, 앞의 논문, 227~230쪽.

53)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200쪽; 218쪽.

54) 최성환, 앞의 논문(2009a), 65쪽.

세손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경우, 매우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종사론’을 당론으로 내세워온, 자신들에 대한 복당은 물론 세손의 정치적 보복을 차단하고 더 나아가 자당인 남당의 정권 창출과 지속적인 안위를 보장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왕손추대사건을 계기로 ‘세손에게 대립했던 노선을 수정해 대리청정을 성사시키면서 세자위해 전력을 닦아버리고 반 세손의 혐의 역시 덮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2. 화완옹주·숙의 문씨 측근 세력의 합종연횡

국혼 이후에 국구가 된 김한구와 아들 김귀주의 세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임오화변 전후 세손 보호를 내세워 왕성하게 활동하며 전횡했던 홍봉한의 위세가 꺾이고 있었다. 이에 갑신처분으로 복당인 홍봉한의 세력과 남당인 김한구·김귀주 세력의 주도권 다툼은 사활이 걸린 문제로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영조가 총애하는 화완옹주[鄭妻]를 등에 업은 소론 정후겸과 숙의 문씨[文女]를 등에 업은 문성국의 작용도 중요한 변수였다. 남당의 세력이 복당인 홍봉한의 세력을 누르고 당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엔 정순왕후가 있었고, 정후겸과 문성국 역시 그 배경엔 각기 정치와 문녀가 있었는데, 이들은 각 시기와 상황에 따라 양 척신과 관계를 조절하면서 처신을 달리했다.

임오화변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은 당파에 따라서 복잡하고도 다양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⁵⁶⁾ 임오화변의 근본 원인은 영조와 사도세자의 정치적 또는 성

55)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99~200쪽.

56) 임오화변의 원인과 배경 등을 살펴보면,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피해자인 사도세자가 노론과 소론 간의 당파 싸움에서 발생했다는 ‘당쟁 희생설’과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성격적 갈등과 그에 따른 사도세자의 정신 질환에서 비롯되었다는 ‘성격 갈등설’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지은 『顯隆園誌』·『御製莊獻大王誌文』·『行狀』과 혜경궁 홍씨가 쓴 회고록 『閑中錄』 등의 기술 차이와 자료에

격적 갈등이었음은 분명하다. 부자의 갈등에다 궁중 세력들의 치밀한 사전 모의를 통한 흉모 또는 이간질 역시 그 사건의 과장을 더욱 배가시켰다. 이들 왕실여성과 그녀들을 배경으로 한 척신 세력들은 반세자 세력으로서 세자의 비행을 매개로 이간을 주도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아래 내용에 잘 드러난다.

정축년에 聖母가 승하하고, 무인년, 기묘년 즈음에 흉악한 무리의 역모가 날로 심해져, 경연을 다시 열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즈음 문녀가 안에서 음모를 꾸미고 홍계희와 김상로가 밖에서 선동하여 흉언을 만들어내는 것이 끝이 없었다. 정휘량과 신만 또한 나라의 인척으로서 음모를 만들어 내어 양쪽의 적들이 안팎으로 합류하였다. 정처가 홍계희의 부탁을 받아 흉서를 만들었고, 김상로의 형세에 기대어 차마 하지 못할 말을 아뢰었으며 널리 퍼뜨린 패악한 흉설을 소매에 감추고 화응함이 극에 달하였다.⁵⁷⁾

위 인용문은 정치에 대한 영조의 편애를 배경으로 부상한 소론 척신 정휘량이 김상로·홍계희 등과 결탁하고 영조의 총애를 받던 문녀 역시 이들 세력과 연계해 흉모와 이간질이 도를 넘었음을 언급한 부분이다. 이 일은 후술하겠지만, 그들을 처벌할 때 적용된 죄목이기도 하다. 왕녀 정처와 후궁 문녀, 그리고 노론 탕평파 김상로와 홍계희 등이 어떻게 연계할 수 있었을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 그들의 연결고리를 찾되, 우선 화완옹주 정처와 세손, 혜경궁 홍씨와의 관계, 그리고 정처가 정후겸을 만나게 된 계기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화완옹주는 1738년(영조 14)에 영조의 일곱 번째 딸이자 暎嬪 李氏에게 다섯 번째 딸로 태어났다. 태어났을 당시, 옹주는 영조에게 그리 특별한 딸이 아니었다. 영조에게는 갓 태어난 화완옹주보다 생모를 일찍

대한 역사 연구자들의 취사선택 때문이다.

57) 김용흥 외 역주, 앞의 책(2015a), 111쪽. “丁丑聖母賓天 而戊寅己卯之際 凶徒逆謀日甚 一日至有復講之請 於是乎 文女圖之於內 禧魯煽之於外 譌作凶言 罔有紀極 翬晚亦以國戚綢繆 兩賊逆綏表裏 鄭妻受禧囑而造出凶書 倚魯勢而忍奏前席 以其布告之悖說 和應袖藏而極矣”

여원 화순옹주나, 孝章世子の 사망 이후에 늦게 얻은 사도세자를 더욱 애지중지했기 때문이다.⁵⁸⁾ 그녀는 11세 되던 1748년(영조 24)에 영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⁵⁹⁾ 친언니 和平翁主가 22살에 사망하게 되면서⁶⁰⁾ 이때부터 영조와 영빈 이씨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⁶¹⁾

12살 되던 1749년(영조 25) 3월에 옹주는 동갑내기 鄭致達에게 시집을 갔다.⁶²⁾ 남편의 가문은 세종 때의 명신 鄭淵을 배출한 이래 청요직을 역임해 온 延日鄭氏 집안으로, 정치달은 정연에게 13대손이 된다.⁶³⁾ 부친 鄭羽良은 소론 완론의 대표 세력으로, 소론의 거두 좌의정 鄭弘良은 그의 중부가 된다. 정우량은 1741년(영조 17) 이조참판 당시에 銓郎의 通淸權 혁파를 주도하는 등⁶⁴⁾ 동생 정휘량과 함께 영조의 탕평책에 동조하여 충애를 받았다.⁶⁵⁾ 정우량과 사돈 관계를 맺은 영조는 탕평의 기반을 더욱더 구축하려고 한 것이다.⁶⁶⁾ 그해 12월에 노론 탕평파 金若魯의 복상에 의하여 그를 우의정에 올리고,⁶⁷⁾ 세자의 보좌를 부탁한 일은⁶⁸⁾ 이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이 집안에 대한 영조의 신뢰는 정치달에게까지 이어져 부마 日城尉가 된 이후에⁶⁹⁾ 그를 부총관으로 임명하기에 이른다.⁷⁰⁾ 화완옹주가 결혼한

58) 『영조실록』 권40, 영조 11년 1월 21일(임진).

59) 『영조실록』 권68, 영조 24년 7월 1일(계미).

60) 『영조실록』 권67, 영조 24년 6월 24일(정축).

61) 혜경궁 홍씨 작 정은임 교주, 앞의 책, 111쪽.

62) 이미선, 「1749년(영조 25) 和緩翁主와 鄭致達」, 『고려사학보』 58, 한국사학보, 2015, 220~226쪽.

63) 延日鄭氏世譜所, 『延日鄭氏世譜』 上, 回想社, 1981, 105쪽.

64) 『영조실록』 권53, 영조 17년 4월 19일(계축).

65) 『영조실록』 권56, 영조 18년 11월 13일(무진); 『영조실록』 권60, 영조 20년 10월 7일(경술). “壽期之子羽良輩良頗主蕩平 故上教及此.”

66) 신채용, 「영조대 탕평정국과 駙馬 간택」, 『조선시대사학보』 51, 조선시대사학회, 2009, 150~151쪽.

67) 『영조실록』 권70, 영조 25년 12월 13일(정해).

68) 『영조실록』 권70, 영조 25년 12월 26일(경자).

69) 『영조실록』 권70, 영조 25년 3월 4일(임자); 『영조실록』 권70, 영조 25년 7월 6일

지 3년 뒤인 1752년(영조 28) 9월에 鄕校洞으로 살림집을 차렸으나 옹주에 대한 영조의 사랑은 더욱 심해 외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옹주의 집에 방문하거나 거동하는 일을 두고 종종 신하들과 언쟁하기 일쑤였다.⁷¹⁾

영조의 사위 사랑과 부부간의 금슬로 한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시아버지인 전 판부사 정우량이 세상을 떠난 뒤⁷²⁾ 20살인 1756년(영조 32)에 낳은 첫딸이 태어난 지 겨우 5개월 만에 죽고,⁷³⁾ 설상가상 불과 한 달 뒤에 남편 정치달마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⁷⁴⁾ 잉꼬부부였던 그녀의 결혼 생활은 10년을 채우지 못하였고 당시 스무 살인 그녀는 청상과부가 되었다. 과부가 된 딸을 항상 옆에 두려고 한 부친의 성화에 못 이겨 그녀는 남편의 초상을 치른 후 아예 궁궐에 들어와 살았다.⁷⁵⁾

화완옹주가 딸과 남편을 잃고 입궁하였을 때, 부친 영조와 친오빠 사도세자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이들 부자간의 반목은 대리청정 이후로 더욱 심해졌다. 공식적인 陵幸에 부자가 함께 단 한 번도 행차한 적이 없었음은 이를 잘 말해준다. 게다가 1758년(영조 34)에 이복언니 화순옹주가 형부 김한신의 뒤를 따라⁷⁶⁾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서⁷⁷⁾ 영조의 사랑은 더욱더 화완옹주에게 집중되었다. 반면 친오빠 사도세자와의 관계는 매우 나빴다.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옹주는 사도세자의 비행과 실수를 그대로 부왕 영조에게 고해마쳐 사도세자가 뒤주에

(임자).

70) 『승정원일기』 57책, 영조 25년(1749) 12월 4일(무인).

71) 『영조실록』 권87, 영조 32년 4월 10일(정미); 『영조실록』 권89, 영조 33년 1월 3일(을미); 『영조실록』 권89, 영조 33년 1월 21일(계축).

72) 『영조실록』 권81, 영조 30년 1월 7일(정사).

73) 『영조실록』 권88, 영조 32년 8월 3일(병자); 『영조실록』 권89, 영조 33년 1월 23일(을묘).

74) 『영조실록』 권89, 영조 33년 2월 15일(정축).

75)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12쪽.

76) 『영조실록』 권91, 영조 34년 1월 4일(신묘).

77) 『영조실록』 권91, 영조 34년 1월 17일(갑진).

간혀 죽이는 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이유에서 동조를 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으나, 시숙부 정휘량 측의 정치 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정휘량은 1737년(영조 13) 문과에 급제한 뒤 글에 뛰어나 1756년(영조 32)에 대제학에 오르고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두루 거친 뒤 좌의정에 오른 인물이다.⁷⁸⁾ 원래 그는 소론 영수 趙顯命의 지원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즈음 노론으로 정치적 노선을 바꿔 영조의 탕평책에 반대하면서 소론의 趙泰壽, 劉鳳輝를 노비 신세로 전락시키는가 하면 세상을 이미 떠난 李光佐, 崔錫恒 등의 관작을 추탈케 하는 데 앞장섰다. 이는 출세를 노리는 조정의 정치세력들이 앞다투어 화완옹주를 뒷배경으로 한 정우량·정휘량 형제에 줄을 서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던 사실에서 확인된다.⁷⁹⁾

화완옹주의 농간은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의 갈등을 부추겨 끝내 세자 폐위에 그치지 않고 세손 즉위를 방해하는 데에까지 미쳤다. 처음에 화완옹주는 자식이 없어선지 조카인 세손을 무척 아끼고 예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청상과부 처지였다. 어머니 영빈 이씨가 1764년(영조 40)에 숨을 거둔 후로 그녀는 경희궁에서 세손과 함께 지내는 일이 많았던 까닭에 27살인 화완옹주와 13살인 세손과의 둘 사이는 각별했다. 실제로 혜경궁 홍씨는 둘 관계에 대해서 “세손을 생모와 떼놓고 손안에 넣어 잠시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자신이 세손의 생모인 것을 미워해 제가 어미 노릇을 하려고 했다”⁸⁰⁾고 회상한 바 있다. 이러한 과도한 화완옹주의 애정 공세에 세손은 부담스러워했다. 이는 세손이 화완옹주와 겸상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혜경궁에게 들키면 눈치를 보았다고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⁸¹⁾

78) 『영조실록』 권98, 영조 37년 8월 26일(임진); 『영조실록』 권98, 영조 37년 10월 3일(무진).

79) 『영조실록』 권81, 영조 30년 1월 7일(정사).

80)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13쪽.

81)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17쪽.

그런데 화완옹주는 鄭錫達의 아들 鄭後謙을 양자로 들였다. 정석달은 집안이 몰락해 庶人 출신으로 인천에서 생선 장수로 연명하고 있던 시가의 먼 친척이었다.⁸²⁾ 그의 아들 정후겸은 鄭伯賓의 현손으로 鄭壽泰의 증손이자 鄭得良의 손자로 남편 정치달에게 11촌 조카가 되는 셈이다.⁸³⁾ 당시 정후겸의 나이 16세였고 옹주의 나이 27살 되던 해였다.

양자 정후겸은 총명하고 똑똑하였다. 화완옹주의 바람대로 영조의 총애를 받아 초고속으로 출세했다. 그는 16세에 장원서 봉사가 되었고,⁸⁴⁾ 1765년(영조 41) 윤2월, 사마시에 입격하였다.⁸⁵⁾ 게다가 18세인 이듬해에는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1767년(영조 43)에는 홍문관 수찬에 올랐다. 이후에도 부교리와 지평을 역임하였고, 스무 살이 되던 1768년(영조 44) 승지가 되었으며⁸⁶⁾ 이듬해인 1769년(영조 45) 개성부 유수를 거쳐 호조참의, 호조참판, 공조참판 등을 지냈다. 이렇듯 양자가 된 정후겸은 화완옹주의 후광에 힘입어 궁궐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출세가도를 달렸다.

소론 정후겸은 홍봉한을 비판하는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김귀주의 남당 및 홍인한의 북당 세력을 오가며 시기에 따라 김귀주의 남당 혹은 홍인한의 북당과 연대하고 있었다.⁸⁷⁾ ‘내외의 권세를 모두 행사했다’고 하는 정치의 아들 정후겸은 처음엔 김귀주의 세력과 합세해 공모했다. 구척신과 신척신 양 척신이 양립하는 정국 상황에서, 매우 이질적 배경을 가진 정후겸과 김귀주의 연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연횡은 攻洪에서 殺洪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는 듯 보인다. 실제로 ‘김귀주당과 정후겸당은 서로 넘나드는 徒黨이었다.’고 평가될 정도였다.⁸⁸⁾ 김귀주와

82) 『영조실록』 권103, 영조 40년 4월 14일(을미).

83) 延日鄭氏世譜所, 앞의 책, 116쪽.

84) 『영조실록』 권103, 영조 40년 4월 14일(을미).

85) 『영조실록』 권105, 영조 41년 윤2월 2일(정미).

86) 『영조실록』 권110, 영조 44년 6월 6일(임술).

87)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214쪽.

88) 최성환, 앞의 논문(2009a), 80쪽;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66~67쪽; 70쪽.

정후겸의 이러한 적극적 연대는 갑신처분 이후 혜경궁 홍봉한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강화된 것으로서, 당연히 중궁전과 정치의 연대와 후원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갑신처분 이후 정후겸이 김귀주와 부합한 것이며 정치 역시 중궁전과 한통속이 되어 혜경궁과 세손을 이간하면서 홍봉한을 공격했는데 이는 안팎의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⁸⁹⁾ 김귀주와 정후겸 간에 오고간 말은 각기 정순왕후와 화완옹주 사이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이를 실현시켰음이 분명해 보인다. 더군다나 정후겸은 이 무렵 승지로도 활약하면서 소론 탕평당 세력을 결집하고 있었다.⁹⁰⁾

갑신처분 이후에 정치는 아들 정후겸이 김귀주와의 정치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그 하나의 방법이 바로 세손과 외가의 인척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었다. 1769년(영조 45)에 세손은 의빈 興恩副尉 鄭在和와 함께 별감을 통해 진연 때에 외방 기녀를 들이는 등 방탕한 기색이 있었으며 세손의 총애를 업은 정재화는 액예들과 함께 여염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비행을 저질러 물의를 일으킨 일이 발생하였다.⁹¹⁾ 정조의 혈기가 왕성한 18세 때의 일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혜경궁은 임오년 사도세자와 같은 일이 재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부친 홍봉한에게 형조판서 趙榮順을 동원시켜 별감들을 치죄하도록 했다.⁹²⁾ 세손은 이 사건을 형조판서까지 동원해 처리한 외조부 홍봉한에 대해 儲位를 위협하려는 시도로까지 생각해 미워하고 그 저의를 의심하였다.

외조부에 대한 세손의 의심과 미움에는 그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한 화완옹주의 농간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겠다. 그 당시 화완옹주와 세손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어렸을 때부터 친분관계를 두껍게 쌓아온 세손이 줄곧 잔소리로 일관한 어머니의 꾸중과 외조부의 편잔에 대해 하소연을 하면 화완옹주가 맞장구치며 험담을 늘어놓고 차후 처신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옹

89)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18쪽; 125~126쪽.

90) 『영조실록』 권110, 영조 44년 6월 6일(임술).

91) 『정조실록』 권4, 정조 1년 8월 16일(기유).

92)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22쪽.

주가 세손에게 ‘홍봉한이 허물을 드러냈으니 외조라고 덮어두지 말라’고 했거나 정조 즉위 직후 혜경궁이 홍봉한에게 별감치죄를 간청하였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한 사실에서 정처의 이간질로 홍봉한에 대한 정조의 오해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독자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세손이 화완옹주에게 의존하며 홍봉한에게서 멀어지자, 정후겸은 신척신 김귀주와 함께 ‘홍봉한이 세손에게 득죄했다.’고 하며 심지어 ‘자기는 동궁께 충성하고 홍씨는 동궁에게 불리하다’는 설까지 유포시키면서 보호론을 표방하였다.⁹³⁾

정후겸과 김귀주와 연계된 또 다른 계획은 이후로도 지속되었는데,⁹⁴⁾ 殺洪을 위해 연합했던 이들의 협공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사도세자의 墓祠 상소에 대한 전 이조낭관 崔益男의 옥사⁹⁵⁾나 한유의 상소와 홍봉한의 왕손 추대 음모 사건⁹⁶⁾ 등은 홍봉한에 대한 영조의 의심을 불러일으켜 복당인 홍봉한의 세력이 위기에 몰리고 홍봉한과 세손간의 거리를 두는 결과를 낳았다.

영조의 확고한 세손 보호 의지와 함께 홍봉한에 대한 영조의 신임이 사라졌음을 확인한 정후겸은 기존의 살홍 전략을 수정하고 이번엔 세손의 외가 홍인한과 연대하여 실세한 홍봉한을 대신하여 ‘동궁보호’를 내세우며 결속했다. 두 세력의 합종연횡 작전은 왕세손의 대리청정을 극력 반대하는 일이었다. 1775년(영조 51) 12월에 영조는 당시 24세의 왕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였다.⁹⁷⁾ 홍봉한의 아우 홍인한마저 攻洪을 선언하며 형과 거리를 두었을 정도로 강력했다.

정후겸은 동궁에 私人을 비밀리에 심어 세자의 언동을 살피게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세손의 비행을 조작하는 한편 沈翔雲을 시켜 세손을

93) 최성환, 앞의 논문(2009a), 82쪽;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24쪽.

94)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9월 12일(경진); 『정조실록』 권4, 정조 1년 8월 19일(임자); 『정조실록』 권18, 정조 8년 8월 3일(병술).

95) 『정조실록』 권121, 영조 46년 11월 10일(임자); 『승정원일기』 73책, 영조 46년(1770) 11월 10일(임자).

96) 『정조실록』 권116, 영조 47년 2월 5일(병자).

97) 『정조실록』 권126, 영조 51년 12월 7일(경술).

보호하는 홍국영을 배척하는 등 세손을 모해하는 데에 앞장섰다. 아래 내용은 정후겸의 동태를 여실히 잘 보여준다.

정후겸은 곧 화완옹주의 양아들인데, 홍인한·홍상간·윤양후·윤태연 등과 함께 英宗이 정사에 싫증을 내는 틈을 타 안팎으로 결탁하여 黨與를 배치해 놓고는 권세를 농간하고 국법을 멸시하여 온 세상을 교란시키는 짓을 하였고, 임금이 영특하고 총명함을 꺼려서 모함하고 꾀방하는 말을 떠벌리어 儲宮을 동요시키려고 음모했었다. 화완옹주도 오랫동안 금중에서 거처하며 그의 아들을 위해 갖가지로 흥계를 도왔다. 을미년 [1775년(영조 51)] 겨울에 대리청정하라는 명이 내린 날에는, 홍인한이 세 가지의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을 진언하여 기필코 큰 계책을 극력 저지하려고 하였다. 임금이 이미 청정하게 되자 또한 심상운을 불러들여 흉악한 상소를 하게 하여 번복되기를 도모하였으나 영종의 聖明함에 힘입어 역적들의 음모가 행해지지 못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명의록』에 기록되어 있다.⁹⁸⁾

이들이 구상한 사안에 정치는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정후겸에 대해 “요사스럽고 위험한 인물로 그 어미와 더불어 상의 語默을 엿보아 이를 가탁하여 威福을 부렸다.”⁹⁹⁾는 사관의 인물평은 화완옹주가 직·간접적으로 아들의 계획에 후원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정조는 신하들에게 “화완옹주를 죄가 없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그가 선대왕께서 깊이 자애하셨기 때문에 하는 대로 내버려두다가 크게 어그러지는 짓을 함에 빠지게 된 것”¹⁰⁰⁾이라고 고모의 여죄를 밝힌 바 있다.

사도세자와 그 아들 세손 정조의 음해 세력의 또 하나의 부류는 영조의 후궁 숙의 문씨와 문성국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 남매는 김상로 등 노론 당평파와 비밀히 결탁하여 영조와 세자 부자 사이를 이간해 사도

98)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3월 25일(병신). “厚謙卽和緩主之繼子 與洪麟漢·洪相簡·養厚·泰淵等 乘英宗倦勤 表裏糾結 布植黨與 弄權蔑法 壞亂一世 憚上英明 譴張誣毀 謀欲動搖儲宮 和緩主又長處禁中 爲其子助兇百方 乙未冬代聽命下之日 麟漢進三不必知之說 必欲力沮大計 上既聽政 又募沈翔雲 投匭疏以圖讎覆 賴英宗聖明 賊謀不得售 詳載明義錄.”

99)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國朝寶鑑』 VI, 「영조조」 12, <홍인한>, 민족문화추진회, 1995, 282쪽.

100) 『정조실록』 권5, 정조 2년 윤6월 17일(을해).

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에 일조했다. 아래의 내용은 남매간의 행보를 여실히 보여준다.

저 문성국은 천한 僕隸로서 살무사 같은 독한 성질이 있었다. 안으로는 요망한 누이를 끼고 밖으로는 반역한 정승과 결탁하여 낮이나 밤이나 애써 준비한 것은 찬탈하려는 흥계가 아니면 곧 시역하려는 음모였다. 계유년 이래로는 그의 뜻이 더욱 방자해지고 그의 음모가 더욱 다급해져, 대궐 후원의 깊은 곳에 鑾輿가 행차하면 문성국과 그의 누이가 우리 양궁을 참소하여 이간하였는데, 하는 말이 망국하여 더러는 ‘아무 날에는 아무 일을 하게 되고 아무 때에는 아무 일을 시행하다’고 하여, 참소하여 이간하지 않는 때가 없었고 참소하여 이간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¹⁰¹⁾

위 인용문에서 사관은 반역한 정승과 결탁해서 세자와 세손을 참소하고 이간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궁관 출신인 숙의 문씨가 어떻게 이들 세력과 연결했을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조와의 만나게 된 시절로 돌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문녀는 賢嬪宮의 궁녀였다. 현빈궁은 孝純王后 趙氏의 처소였다. 현빈은 영조와 靖嬪 李氏 사이에서 태어난 효장세자의 부인이다. 그녀가 어떤 이유로 궁녀가 되어 현빈궁에 입궁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씨의 언니가 沈鏞의 첩이고, 심수가 문씨의 소생 和寧翁主의 남편 沈能建의 재종손이고 보면,¹⁰²⁾ 심수의 추천을 받아 궁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모친이 비구니이고¹⁰³⁾ 친언니가 양반가의 첩이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그녀는 적어도 양인 이상 집안의 서녀이거나 이보다 더 미천한 신분이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
- 101)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5월 13일(계미). 김용흥 외, 앞의 책(2015a), 185쪽.
 “彼聖國以僕隸之賤 有鷹螫之性 內挾妖妹 外結賊相 凡所以日夜綢繆者 苟非篡奪之計 卽是弑逆之謀 奧自癸酉以來 其志愈肆 其謀愈急 後庭深處 鑾輿幸臨 則聖國與其妹 讒間我兩宮 爲言罔極 或曰某日爲某事 某時行某事 無時而不讒間 無事而不讒間.”
- 102) 黃胤錫, 『頤齋亂藁』 권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663쪽. “故判書沈鏞妾 卽逆豎文成國之妹 丙申賜死內人文女之姊妹也.”
- 103)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262쪽.

영조와 궁녀 문씨와의 만남은 현빈 조씨의 사망 직후인 1751년(영조 27)이었다. 현빈은 남편 효장세자가 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 청상과부로 살다가 화평옹주가 세상을 떠나고,¹⁰⁴⁾ 그로부터 3년 후에 사망하였다.¹⁰⁵⁾ 이 당시 며느리 현빈을 잃은 영조의 슬픔은 대단히 컸다. 신분적 콤플렉스와 경종 독살설의 혐의로부터 결백을 주장해 왔던 영조에게 있어 화평옹주와 큰며느리 현빈 조씨는 마흔두 살에 얻은 외아들 사도세자보다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영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대리청정의 명을 내린 당일에 영조는 “나는 세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슬픔과 상실감에 젖어있는 영조는 며느리의 장례식을 손수 챙기는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였다. 현빈 조씨의 빈소가 마련된 建極堂에 자주 찾아오면서 그곳에 소속 나인으로 있던 문녀가 영조의 눈에 띈 것이다. 마침내 현빈 조씨의 장례식이 끝난 뒤 그녀는 그해 12월부터 영조의 승을 받기 시작했다.¹⁰⁶⁾ 환갑 가까운 나이에 며느리를 문상하러 갔다가 소속 궁녀를 보고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합방한 영조의 행동은 사도세자가 인원왕후전의 궁녀를 총애했던 행동과 마찬가지로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이었다.

궁인 문녀는 영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만삭의 임산부가 된 문씨에게 영조가 1753년(영조 29)에 정4품 昭媛으로 봉작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원래 후궁 첩지는 승정원의 승지를 시켜 開政하기를 기다렸다가 최종 교지에 어보를 찍어야 했다. 그런데 영조는 이때 승지 尹光毅에게 명령을 내렸다가 윤광의가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자신의 명령을 거절하자 다른 승지로 하여금 기필코 어보를 찍게 했다.¹⁰⁷⁾ 이 명령은 과분한 처사인데다 승은 궁인에게 종4품을 건너뛰고 정4품을 내린 일은 누가 봐도 파격적인

104) 『영조실록』 권67, 영조 24년 6월 24일(정축).

105) 『영조실록』 권74, 영조 27년 11월 14일(병자).

106)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262쪽.

107) 『영조실록』 권79, 영조 29년 2월 8일(갑오).

조치였다.

어쨌든 궁인 문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3월에 당시 머물고 있던 古書軒에서 화령옹주를 낳았고 이후에도 연년생으로 和吉翁主를 출산하였다.¹⁰⁸⁾ 이처럼 소원 문씨는 영조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면서 무례하고 방자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자신보다 품계가 4단계나 더 높은 사도세자의 모친인 영빈 이씨와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언행을 불손하게 해 왕대비 인원왕후로부터 꾸짖음을 들었을 정도였다.¹⁰⁹⁾

궁인 출신인 문씨는 소원에 책봉되고 연이은 회임과 출산을 성공하게 되면서 장차 왕자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서 권력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 당시 세자와 영조의 갈등은 최고조로 달해 자칫 위촉 즉발의 상황인 만큼 세자의 목숨은 언제 어떻게 버려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로웠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따른 나름대로의 처신이 필요했기에 그녀는 영조의 뜻에 대체로 순응하며 세자를 음해하려는 노론 강경파인 정승 김상로, 홍계희 등과 손을 잡았다.

정치적 노선을 함께한 그녀는 세자를 위태롭게 하려는 그들의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¹¹⁰⁾ 이때 그녀의 역할은 둘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이었다. 그녀가 영조에게 세자에 관한 흉언에 대해 무슨 말이 오갔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김상로 세력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한 그녀가 저들에게서 전해들은 세자의 병증과 비행 과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기도 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 험담을 늘어놓을 것이라 예측할 뿐이다. 실제로 당대 정치 평론서인 『玄臯記』에서도 그녀가 노론 강경파 세력과 결탁해 사도세자를 모함해 영조와 세자 사이를 더욱 악화시켰음을 밝혔다.¹¹¹⁾ 『玄臯記』의 기록은 소론 계열 朴涵源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사료의 신빙성을 배가한다. 사실 문녀의 이간질에 대해 영조만이 알지 못했

108)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262쪽.

109) 김용흠 외 역주, 앞의 책(2015a), 19쪽.

110) 『영조실록』 권100, 영조 38년 9월 14일(계유); 黃胤錫, 『頤齋亂藁』 4책,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8, 414쪽. “翁主以思悼廟同腹媒 乃敢離間至慈 積累歲月 而尙魯聖國文女輩 又從而左右之 竟致優疑成疾 遂有壬午大處分.”

111) 김용흠 외 역주, 앞의 책(2015a), 111쪽.

을 뿐 당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¹¹²⁾

세자에 대한 그들의 모함 작전은 1757년(영조 33)에 인원왕후, 정성왕후의 승하 이후, 왕실의 강력한 후원자가 사라지면서 더욱 거세졌다. 세자에 대한 김상로 세력의 참언과 문씨의 비방이 안팎으로 거세지고 언론이 차단 왜곡됨에 따라 세자의 지위는 동요돼 결국 사사되었다. 이후 문녀는 1771년(영조 47)淑儀로 승급되었지만, 화길옹주를 출산한 이후로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다.

궁인 문씨가 사도세자 폐위와 세손 즉위 방해에 앞장서 정치세력에 협조한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문씨 자신의 신분 향상을 실현하고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함이었다. 두 해 간격으로 내리 출산을 경험한 젊은 문씨가 장차 왕자를 생산할 여지가 대단히 높았다.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는 나뉘 대로 나빠 세자가 언제 폐위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만약 세자가 대죄를 지어 폐서인이 되고 자신이 왕자를 낳는다면 원손조차 적장손이라도 폐세자인 죄인의 아들이 될 것임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자기 소생 왕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실제로 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도 궁인 출신이었다가 세자를 낳고 존귀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분 상승의 욕심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궁중에서는 문씨와 문성국 남매가 “아들을 못 낳아도 다른 사람의 자식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았노라 하려 한다”¹¹³⁾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

왕자를 생산하고픈 그녀의 희망이 차츰 무너지는 때쯤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 세손이 대통을 잇게 되면서 자신의 목숨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 짐작했을 것이다. 이에 세손의 즉위만은 막아야 했기에 세손에 대한 적대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다.

화완옹주가 정국 변동에서 보여준 행보는 아들의 미래를 보장받고 더 나아가 시택 연일 정씨 집안을 번성시키기 위함이었다. 시택은 소론 집안이었으나, 화완옹주와 정후겸은 노론 벽파인 정순왕후 김씨 집안과 비교적 비슷한 노선을 걸었다. 그것은 당파적 이해관계보다는 세손을 바라

112) 『영조실록』 권100, 영조 38년 9월 14일(계유).

113)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262쪽.

보는 시각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한쪽은 고모이고 한쪽은 법적인 할머니로 최측근 왕실 구성원이었다. 처음에는 반세자·세손 위해 세력이었던 이들은 임오화변과 갑신처분으로 인해 세손의 종통이 옮겨지고 외척과 내척의 위계 관계가 변동됨에 따라¹¹⁴⁾ 서로 세손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다. 실제로 정처는 “세손이 우리 집안과 외가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으니 취사할 때에는 반드시 양가를 위주로 해야 한다”¹¹⁵⁾고 위협했을 정도였다. 이처럼 영조의 확고한 세손 보호로 인해 세손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처 모자는 세손과 깊은 유대를 맺어두는 게 장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 모자는 자신들의 세력을 세손 주변에 심어서 세손을 장악하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¹¹⁶⁾ 이처럼 정처는 세손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한때 적대적으로 대해왔던 외가 풍산 홍씨 집안과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정후겸, 홍인한을 통해 대권주자가 될 세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했던 것이다.

화완옹주와 정후겸 모자나 문녀와 문성국 남매의 행보는 성공 반, 실패 반이었다. 자신들이 세운 세자 폐위론의 구상대로, 세자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宗嗣를 위해 뒤주에 갇혀 폐위된 채 흥거했다. 그들은 반세자·세손 세력으로서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매우 컸다. 화완옹주 모자는 『명의록』의 의리에 반한 죄인으로 취급되어 모진 수난을 당했다. 아들 정후겸은 함경도 경원부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고,¹¹⁷⁾ 목숨을 겨우 보전한 화완옹주는¹¹⁸⁾ 서인으로 강등돼 ‘정치달의 처’란 의미인 ‘정처’로, 사면령이 내려질 때까지¹¹⁹⁾ 한평생

114) 최성환, 앞의 논문(2009a), 74쪽.

115) 『明義錄』 卷首, 『尊賢閣日記』 上, 35쪽; 이이화, 앞의 책, 1983, 483쪽. “和緩嘗謂曰 抹樓下非吾家與外家則豈可在此位乎 必於言議取捨之際 以兩家爲主然後 可無事矣.”

116) 『영조실록』 권124, 영조 51년 6월 19일(을미).

117)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3월 25일(병신);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5월 16일(병술).

118) 『정조실록』 권51, 정조 23년 3월 4일(임술).

죄인의 몸으로 살았다. 문숙의 남매 역시 세손 즉위 방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세손 정조가 즉위하자 사도세자의 죽음과 연관된 홍인한을 비롯한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과 처벌이 이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숙의 문씨는 출궁 당했고 문성국과 어머니는 노비가 되었다.¹²⁰⁾ 이후 작위를 박탈당한 그녀는 ‘문녀’라는 격화된 호칭으로 불렸고 도성 밖으로 쫓겨났으나 결국 영조의 국상이 끝나자 사사되었다.¹²¹⁾

Ⅲ. 혜경궁 홍씨의 궁중 내 인맥 연계와 막후 활동

선왕 영조의 두 번째 계비인 정순왕후와 동생 김귀주는 외척당인 남당과 연결되었고, 사도세자의 부인 혜경궁과 부친 홍봉한은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또 다른 외척당 북당과 손잡았다. 중전 정순왕후와 화완옹주가 반세자·반세손의 행보를 걸었다가 친세손의 정치노선으로 선회하였던 데 반해 세자빈 혜경궁 홍씨는 남편 세자 보호에 미온적인 행보를 보였다가 세손 보호에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걸었다. 혜경궁 홍씨의 행보 가운데에 눈여겨봐야 할 것은 궁궐 내의 왕실여성들인 정순왕후와 화완옹주와의 연대하는 데에 교섭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먼저 혜경궁 홍씨의 정치적 행보를 살펴보기 전에 그녀의 집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혜경궁 홍씨는 1735년(영조 11) 6월에 한성부 盤松坊에서 홍봉한과 韓山府夫人 李氏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洪之慶을 시조로 하는 豐山洪氏 가문이다. 이 집안이 주목받게 된 시기는 선조 때의 문신 7대조 洪履祥 때부터였다. 홍이상은 閔純의 문인으로, 선조 연간에 首望으로 추천될

119) 『순조실록』 권11, 순조 8년 5월 17일(임자).

120)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3월 30일(신축).

121)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5월 13일(계미);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5월 14일(갑신);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8월 10일(기유).

정도로 조야의 신망을 받았다.¹²²⁾ 홍이상의 손자이자 洪震의 아들 洪柱元은 선조의 부마 永安尉가 되었다. 선조와 인목대비 소생 貞明公主가 홍씨의 5대 조모가 된다. 영안위 홍주원은 서인의 핵심 인물로 인조반정의 주역 金瑬의 제자이자 문장가 李廷龜의 외손자였다.

할아버지 홍현보는 이조참판이었으며 큰할아버지 洪錫輔의 아들 洪象漢은 예조판서를 역임하는 등 이 집안은 출세가도를 달리는 관료 집안이었다. 홍상한은 학문적으로 경종비 宣懿王后의 큰아버지 魚有鳳의 문인이자 사위로 노론 낙론계였다.¹²³⁾ 부친 홍봉한 역시 왕실과의 혼인이 이루어지기 전인 성균관 진사 시절에는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묘배향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¹²⁴⁾ 노론 계열의 신진사류로 활동하였다.

16세기 후반 이후 문벌적 기반을 구축해오던 이 집안은 홍씨가 10살 되던 1744년(영조 20)에 사도세자와 혼인하게 되면서¹²⁵⁾ 당대 대표적인 문벌 가문으로 자리 잡았다.¹²⁶⁾ 홍봉한은 홍씨가 세자빈이 되면서¹²⁷⁾ 정 9품 세자익위사 세마에서 1744년(영조 20) 문과에 급제한 후¹²⁸⁾ 1년도 되지 않아 종2품 광주부윤이 되었다.¹²⁹⁾ 이러한 초고속 승진에는 홍봉한에게 정치적 역할을 기대했던 영조의 마음이 있었다.¹³⁰⁾ 실제로 승문당에서 홍봉한을 처음 만난 영조는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에게 “오늘 세자를 위하여 정승 하나를 얻었노라”¹³¹⁾고 언급한 바 있다.

그녀가 세자빈으로 입궁했을 때 궁중에는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왕대

122) 『광해군일기』 권95, 광해군 7년 9월 19일(임진).

123) 임혜련, 「영조~순조대 惠慶宮의 위상 변화」, 『조선시대사학회』 74, 조선시대사학회, 2015, 79쪽.

124) 『영조실록』 권40, 영조 11년 8월 18일(갑신).

125) 『영조실록』 권58, 영조 19년 11월 13일(임진).

126) 차장섭, 『조선후기문벌연구』, 일조각, 1997, 57쪽.

127) 『영조실록』 권58, 영조 19년 11월 13일(임진).

128) 『영조실록』 권60, 영조 20년 10월 19일(임술);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87쪽.

129) 『영조실록』 권61, 영조 21년 4월 6일(무신).

130) 『영조실록』 권60, 영조 20년 10월 19일(임술).

131)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45~46쪽; 188쪽.

비 인원왕후를 비롯해 시부모인 영조와 정성왕후, 영빈 이씨, 그리고 효장세자의 부인이자 손위 동서가 되는 현빈 조씨가 있었다. 이 가운데에 세자빈 홍씨에게 가장 주요한 사람은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였다. 당대 노론을 대표하던 명문집안의 세자빈 홍씨는 영빈에게 매우 흡족한 며느리였다.¹³²⁾ 엄격한 법도를 익혀나가는 것은 어린 세자빈에게 매우 힘든 부분이었으나, 왕실여성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궁중 생활에 잘 적응하였다.

그런데 15살이 되던 1749년(영조 25)에 관례를 치르고 세자와 합방을 치른 후 영조로부터 갑작스러운 세자의 대리청정 소식을 들었다. 그해 10월쯤 임신하고 다음해인 1750년(영조 26) 8월에 경춘전에서 懿昭世孫을 낳았으나 두 돌 만인 1752년(영조 28) 3월에 세상을 떠났다.¹³³⁾ 이 당시 임신 4개월 임산부였던 그녀는 그해 9월에 둘째 아들인 정조를 낳았고¹³⁴⁾ 이후에도 1754년(영조 30)에 淸衍郡主, 1756년(영조 32)에 淸璿郡主, 두 딸을 낳았다.

앞으로 그녀에게 닥칠 시련은 합방한 날에 대리청정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 서서히 드러났다. 대리청정 동안에 전개된 부자간의 갈등과 세자의 실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세자의 정신적인 질환에 따른 이상행동은¹³⁵⁾ 궁중은 물론 조정에서 공공연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아들 정조는 10세인 1761년(영조 37)에 입학례를 치렀고¹³⁶⁾ 관례를 행했다.¹³⁷⁾ 당시 조정에서는 정승들이 세자의 平壤遠遊 문제로 연이어 자살하는 사건이 터지고 있던 때였다.¹³⁸⁾ 그해 겨울에 세손빈으로 김시

132) 이미선, 「영조 후궁 嬪嬙李氏의 생애와 위상」, 『역사와 담론』 제76집, 호서사학회, 2015, 137~138쪽.

133)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3월 4일(을축).

134) 『영조실록』 권77, 영조 28년 9월 22일(기묘).

135)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246쪽.

136) 『영조실록』 권97, 영조 37년 3월 10일(기유).

137) 『영조실록』 권97, 영조 37년 3월 18일(정사).

138) 『영조실록』 권97, 영조 37년 1월 5일(을사); 『영조실록』 권97, 영조 37년 2월 15일(을유); 『영조실록』 권97, 영조 37년 3월 4일(계묘),

목의 딸이 결정되면서 정조는 1762년(영조 38)에 혼인하였다.¹³⁹⁾ 사돈 김시목은 숙종의 외할아버지 金佑明의 현손이며 병조판서 金聖應의 아들로, 이 집안은 淸風金氏 명문가였다.

이맘때쯤 폭력까지 수반한 사도세자의 난행에 혜경궁 홍씨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게다가 세자의 법통상의 모후이던 정성왕후와 인원대비가 1757년(영조 33) 2월과 3월에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세자를 감싸주는 안전판이 사라지자 영조와 세자는 직접 충돌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흥봉한은 탈법으로 빼돌릴 재물로, 세자 보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했을 만큼 세자보호에 적극적이었다.¹⁴⁰⁾ 이제 조정에서는 문제가 드러난 세자의 처리와 그 대안이 왕과 심복대신 사이에 비밀리에 논의되었다. 결국 1762년(영조 38) 윤5월 21일,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사사됨으로써 혜경궁은 스물여덟 살에 1남 2녀를 둔 청상과부가 되었다. 아들 세손은 11살이었고, 두 딸은 각기 9살과 7살이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혜경궁 자신은 물론 차기 왕위계승자인 아들 세손에게 왕위까지 위협당할 치명적인 일로, 모자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 자명했다. 아들과 함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혜경궁 홍씨는 임오화변 이후로, 앞으로 전개될 정국을 헤쳐 나갈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만 했다. 이에 그녀는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아버지 영조와 아들 세손 사이에 강력한 유대감을 심어놓기로 마음먹고 곧 실행에 옮긴다.

우선 임오화변 이후 3개월이 지난 8월에 시아버지 영조를 만나¹⁴¹⁾ 원망보다 모자의 안전을 보장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올린 후 아들 왕세손의 양육을 부탁했다. 이는 사도세자 처분에 대한 영조의 결정에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이었다. 이러한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에

139)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2월 2일(병인);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2월 3일(정묘).

140) 최성환, 앞의 논문(2009a), 47쪽.

141)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64쪽.

감동한 영조는 ‘嘉孝堂’의 堂號를 내렸다.¹⁴²⁾ 그녀의 바람대로 이후 아들 정조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이는 혜경궁이 쓴 『한중록』에서 “성은이 지중하셔서 세손을 사랑하심이 지극하였다. 선회궁께서도 아드님 정을 세손에게 옮기서 슬프신 마음을 쏟아 세손의 일상생활과 음식 등에 일일이 신경을 써주셨다”¹⁴³⁾ 라고 언급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녀는 영조와 세손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친밀감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궁궐 내 우호세력이 돼주기를 소원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7월 24일 아들이 시아버지에 뒤이어 국본으로 확정된 것은¹⁴⁴⁾ 혜경궁 홍씨가 발 빠르게 움직인 노력의 대가였다고 하겠다.

국본이 된 세손 보호에 정성을 쏟고 있는 혜경궁 홍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1764년(영조 40) 2월, 세손을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아 종통을 잇도록 한다는 영조의 선언이었다.¹⁴⁵⁾ 영조와 정성왕후의 혼례날인 21일을 기념한 ‘갑신처분’은 세손이 공식적으로는 혜경궁 홍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영조의 입장 표명이다. 사도세자의 종통을 차단함으로써 사도세자 추승 세력들이 차후 사도세자를 왕으로 올리고 영조의 처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¹⁴⁶⁾ 근본적으로는 세손에 대한 정통성의 是是非非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혜경궁 홍씨와 영빈 이씨의 마음을 헤아린 것은 아니었다. 다음날인 2월 21일에 영조로부터 세손이 효장세자의 후사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혜경궁은 임오년 못지않은 충격을 받아 내심 대단히 절망했다.

설상가상 사도세자의 삼년상이 끝난 시점인 1764년(영조 40) 7월에 모자를 지지해 주던 영빈 이씨마저 세상을 떠났다.¹⁴⁷⁾ 갑신처분에 의해

142) 『순조실록』 권19, 순조 16년 1월 21일(신축). [혜경궁 지문];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65쪽.

143)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2008, 65쪽.

144) 『영조실록』 권100, 영조 38년 7월 24일(갑신).

145) 『영조실록』 권103, 영조 40년 2월 20일(계묘).

146) 최성환, 앞의 논문(2009a), 67쪽.

147) 『영조실록』 권104, 영조 40년 7월 26일(병자).

반세손 세력의 움직임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궁궐 내에 풍문으로 떠도는 “죄인의 자식은 승통할 수 없다[罪人之子 不可承統]”라는 8자 흥언과 정순왕후 김씨측에서 들려오는 양자설은 혜경궁 홍씨에게 큰 근심과 불안을 가져다주었다. 게다가 세자 폐위에 적극적이었던 흥인한계 북당 역시 11자 흥언을 주고받으며 흥모에 동조하고 있었다.¹⁴⁸⁾ 그런 만큼 혜경궁과 세손의 위상은 매우 위태로웠다.

사실 임오화변 직후엔 그 사건 수습 과정을 전담했던 부친 흥봉한에 대한 영조의 신뢰가 커져 흥봉한이 세손 보호를 자임하면서 풍산 홍씨 가문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실제로 풍산 홍씨 집안의 인사들이 주요 관직에 등용되었는데, 숙부 흥인한은 호조참판, 도승지, 이조판서를 거쳐 1774년(영조 50) 우의정에 올랐고,¹⁴⁹⁾ 오빠 洪樂仁은 이조참판을 거쳐 도승지에 올랐으며¹⁵⁰⁾ 동생 洪樂信과 洪樂任은 연관직을 거쳐 승지에 제수되었다.¹⁵¹⁾ 이처럼 풍산 홍씨 집안을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면서 경주 김씨 외척 집안과 연계한 정치 세력들은 흥봉한을 중심으로 풍산 홍씨 집안을 수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당시 구척신 풍산 홍씨 집안 흥봉한과 신척신 경주 김씨 집안 김귀주의 두 척리가 서로 싸우는 형국인 상황에 대해 영조 역시 “양척리의 싸움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¹⁵²⁾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놓았던 것은 이러한 정황을 추론하게 한다. 갑신처분 이후 세손 승계에 대한 영조의 확고한 의지로 함종연횡을 한 정순왕후 세력과 화완옹주 세력들이 세손 보호를 표방할 정도여서 한시름을 덜었으나, 조정 내에서 친정아버지의 위기와 가문의 몰락은 혜경궁에게 새로운 근심거리가 되었다.

148) 최성환, 앞의 책(2009a), 65쪽; 『公車指南』(규장각 소장, 규80952). “任城爲注書時日記曰 … 輩晚麟晦四賊同坐 一處雀躍嬉笑 以十一字凶言狼藉相言 其時入廷諸臣莫不愕然失汗 十一字卽八字之意也.”

149) 『영조실록』 권123, 영조 50년 12월 7일(병술).

150) 『영조실록』 권120, 영조 49년 2월 6일(을축).

151) 『영조실록』 권120, 영조 49년 윤3월 2일(신유); 『영조실록』 권123, 영조 50년 12월 6일(을유).

152) 『영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9월 12일(경진).

1770년(영조 46)~1771년에 걸쳐 부친 홍봉한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 계기는 호서의 유생 한유의 상소에서 비롯되었다. 한유는 도끼를 들고 궐문 앞에 엎드려 홍봉한 일가의 비리와 외척으로서의 권력 남용 등을 거론하며 亡國洞의 亡政丞인 홍봉한을 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³⁾ 영조는 그 배후를 의심하며 한유를 儒籍에서 삭제하고 흑산도로 징배하는 등 엄한 처벌을 내렸다.¹⁵⁴⁾ 이때 홍봉한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黑頭奉朝賀’로 삼아 은퇴를 기정사실화해 버렸다.¹⁵⁵⁾ 일련의 과정은 구척신 홍봉한의 위상이 실추된 것이다.

홍봉한이 물러난 후에도 그를 제거하기 위한 경주 김씨 세력과 연계된 세력들의 공작은 계속되었다. 8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10일에 崔益男의 상소로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세손이 사도 세자 묘를 참배하지 않은 것은 불효인데 이를 막고 있는 인물이 영의정 金致仁이라고 폭로하였다.¹⁵⁶⁾ 정후겸과 김귀주와 연결된 具庠은 이 상소의 배후가 홍봉한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영조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어 홍봉한이 임오화변을 전적으로 군주의 탓으로 돌리고 김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최익남을 시킨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다.

홍봉한에 대한 영조의 의구심이 점차 커질 무렵에 정후겸과 김한기가 홍봉한의 왕손 추대 음모를 고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영조는 홍봉한이 은언군과 은신군의 방자함을 조장했다고 단정 짓고 창의궁에 거둔 후 호위대장인 수어사 김한기에게 궁궐을 호위하도록 하고 홍봉한과 김시묵을 내쫓았다.¹⁵⁷⁾ 홍봉한에 대한 영조의 의심이 점차 더해지자, 혜경궁은 거둬 위기에 처한 친정을 위해 막후에서 정치적 수완을 강구하였다. 영조와 세손과의 잦은 만남을 주선해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부친 홍봉한 공격의 배후에 있는 정순왕후, 김귀주 남매와

153) 『영조실록』 권114, 영조 46년 3월 21일(무술).

154) 『영조실록』 권114, 영조 46년 3월 22일(기해); 『영조실록』 권114, 영조 46년 3월 23일(경자).

155) 『영조실록』 권114, 영조 46년 3월 27일(갑진).

156) 『영조실록』 권115, 영조 46년 11월 10일(임자).

157) 『영조실록』 권116, 영조 47년 2월 5일(병자).

화완옹주, 정후겸 모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 우호세력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우선 그녀는 동생 홍낙임에게 편지를 보내 정후겸을 연합관계에 있는 김귀주와 분리시키고 그를 통해 화완옹주를 움직여 집안에 닥칠 재변을 막기 위해 정후겸과 사귀도록 요청했다.¹⁵⁸⁾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녀는 정치적 현실을 인정하며 세손의 안위를 위해 세손을 자신에게서 떼어 놓으려 하는 화완옹주에게 성의를 다해 친분 관계를 쌓아나갔다. 세손에게도 “네 고모를 厚待하여 나처럼 보라”고 당부했을 정도였다.¹⁵⁹⁾ 이러한 혜경궁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동생 홍낙임이 정후겸과 친해졌고 화완옹주의 주선을 통해 흥봉헌에 대한 영조의 의심과 노여움을 풀 수 있었다. 여러 세력들의 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손의 대리청정을 지시한 영조가 그로부터 3개월 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¹⁶⁰⁾ 마침내 1776년 3월에 정조는 왕위에 올랐다.¹⁶¹⁾ 정조의 나이 25살이고 혜경궁 홍씨의 나이 42살이 되던 해였다.

혜경궁의 막후 활동은 자신의 신변 보호는 물론 세손의 안위를 보장 받고 더 나아가 순탄하고 안정된 세손의 왕위승계를 보장받기 위함이었다. 혜경궁과 세손 모자에게 폐서인이 된 사도세자의 죽음은 남편, 아버지를 잃은 데에 그치지 않는다. 폐서인이란 세자를 폐위해 평범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며 이는 홍씨가 더 이상 세자빈의 지위가 아니고 아들 세손 역시 그의 처지가 불안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사도세자의 폐위를 宗社論의 명분으로 내세운 반세자 세력의 흥언은 자신들이 죄인으로 규정한 사도세자의 아들 세손의 종통문제까지 언급한 사안이었다.¹⁶²⁾ 실제로 혜경궁은 김귀주가 1761년(영조 37) 이후에 “세자가 失德하니 세손도 온전치 못하리라”고 술회한 바 있다.¹⁶³⁾

158)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71~72쪽; 154쪽; 215쪽.

159)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64쪽.

160) 『영조실록』 권127, 영조 52년 3월 5일(병자).

161) 『영조실록』 권127, 영조 52년 3월 10일(신사).

162) 최성환, 앞의 논문(2009a), 52쪽.

163) 최성환, 앞의 논문(2009a), 52쪽.

혜경궁은 아들 세손과 함께 당시 위태로웠다. 그녀는 남편 사도세자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아버지를 살려 달라 애원하다 쫓겨난 세손에게 죄가 드리울까 곤장 자식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출궁한 것이나¹⁶⁴⁾ 재입궁한 이후 11살 밖에 안 된 아들을 시아버지 영조에게 맡겨 생이별한 결정은 아들의 장래를 위해 결심한 일이었다. 그런 만큼 그녀는 아들 세손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야 했다.¹⁶⁵⁾ 세손보호가 급선무라 판단한 혜경궁은 남편 선세자를 옹호하기보다는 영조의 처분을 적극 받들며 세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했다. 임오화변 발생 이후에 혜경궁이 영조와의 첫 만남에서 남편에 대한 영조의 처분을 동조한 모습이나 자신들의 목숨을 보전해 주고 사도세자의 위호를 회복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러 준 은혜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때문에 남편 세자의 폐위에 대해 적극 나설 수 없는, 미온적이고도 소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궁중 내의 인맥을 연계하여 교섭한 또 다른 이유는 친정 풍산 홍씨 집안을 보호하고 보장된 장래 국구와 대비 지위를 확보받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아들 세손이 영조를 직접 승계하면 훗날 세손에 의해 남편 사도세자의 국왕 추숭과 왕대비 승격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조의 갑신처분 이후 세손이 효장세자를 사속하게 되면서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영조가 갑신처분을 통해 사도세자의 종통을 차단함으로써 줄곧 사도세자를 보호해 왔던 세력의 대표 홍봉한이 훗날 王父 추숭의 명분으로 국구가 되어 영조 자신이 내린 처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차단한 것이다. 물론 아들 세손의 지위는 다소 안정되었다. 때문에 혜경궁은 당시 “애통은 애통이고, 의리는 의리”라며 내린 영조의 처분을 은혜로서 받아들였다.¹⁶⁶⁾

그러나 갑신처분 이후에 부친 홍봉한과 함께 혜경궁의 지위는 모호해

164)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윤5월 13일(을해);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63쪽.

165)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74쪽.

166)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214쪽.

졌다. 홍봉한은 이제 공식적으로 승통세자의 장인, 곧 장래의 국구가 아니라 세손의 외조부로 격하되었고, 혜경궁 역시 세자의 부인, 곧 장래의 왕비, 대비가 아니라 세손의 생모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갑신처분은 부친 홍봉한과 함께 혜경궁에게는 엄연한 자손을 빼앗겨 국구와 대비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아들 세손이 즉위해도 생모가 되는 혜경궁은 장래 대비가 되지 못함은 물론 법통상으로도 정조에 대한 홍봉한과 자신의 관계가 희석해짐을 뜻하였다. 게다가 국구가 된 김한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그 일문의 영향력도 커짐에 따라 양 척신간의 주도권 다툼이 발생하면서 1770~1776년에 걸쳐 홍봉한에게 닥친 시련으로¹⁶⁷⁾ 홍봉한의 위상과 함께 친정인 풍산 홍씨 집안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안한 처지 때문에 혜경궁은 영조의 뜻을 적극 받들면서 홍봉한과 정치 모자 사이를 중재하여 그들 덕분에 집안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는 “내 집이 처음에는 후견으로 하여 죽을 뻔하였으나 나중에는 후견 모자의 힘으로 보전하였다.”고 회고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¹⁶⁸⁾

그녀의 행보는 비교적 성공을 이루었다. 아들과 함께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¹⁶⁹⁾ 혜경궁 홍씨는 비록 사도세자-세손의 정상적 계승을 이루지 못했지만, 훗날 아들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선포하며¹⁷⁰⁾ 왕위에 오르면서 남편과 함께 대비의 비견되는 위상을 얻게 되었다. 친정 역시 정조 즉위 직후에 한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지만¹⁷¹⁾ 순조 때에 이르러 친정 가문이 신원됨으로써 명성을 회복하였다.

167)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83쪽.

168)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30쪽.

169)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앞의 책, 174쪽.

170)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3월 10일(신사).

171) 김영민, 「영·정조대 풍산 홍봉한 가문의 부흥과 분열」, 『사학연구』 100, 한국사학회, 2010.

IV. 맺음말

영조대 후반에 주목되는 왕실여성들은 왕비 정순왕후를 비롯해 세자빈 혜경궁 홍씨, 화완옹주[鄭妻], 숙의 문씨[文女]이다. 정순왕후는 경주 김씨 김한구의 딸로, 16살인 1759년(영조 35)에 영조의 두 번째 왕비가 되었다. 이 집안은 충청도 지방에 근거를 둔 산림 가문으로, 노론 벽파의 당색을 지녔다. 반면 혜경궁은 풍산 홍씨 홍봉한의 딸로, 10살 되던 1744년(영조 20)에 세자빈이 되었다. 이 집안은 명망 있는 서인 노론 집안이며 당대 대표적인 문벌 가문이었다.

화완옹주와 숙의 문씨의 신분은 이들과 달랐다. 화완옹주는 영조의 딸이고 숙의 문씨는 후궁이다. 화완옹주는 1749년(영조 25) 12살 때에 연일 정씨 정치달에게 시집갔는데, 이 가문은 소론의 거두 좌의정 정휘량의 집안이었다. 문녀는 현빈궁 소속 궁녀였다가 현빈 조씨가 사망한 1751년(영조 27)에 영조의 승을 입었다.

영조 시대는 ‘탕평정치’로 불리는 때였다. 그녀들의 생애 가운데에 임오화변(1762년)과 갑신처분(1764년)이 일어났다. 임오화변은 영조를 비롯해 노론의 남당과 일부 북당계, 그리고 내·외척 세력이 공모하여 일으킨 정치적인 사건이고 갑신처분은 삼종혈맥인 세손을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아 대통을 잇도록 한다는 영조의 공식 입장 표명이었다. 순조로운 세손의 승계를 염두에 둔 영조의 행보에, 4명의 왕실여성들은 각자가 처한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행보를 걸었다. 물론 그녀들의 행보에는 혈연관계인 최측근 인물들의 협조가 뒷받침되었다.

왕비 정순왕후는 세자 폐위와 외척인 홍봉한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남당 측이 세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러나 갑신처분 이후에는 그 노선을 수정해 왕세손이 왕위를 승계하는 데에 협찬했다. 그녀가 정국 변동에서 보여준 행보는 자신의 안위와 보장된 대비 지위, 임오화변 전후로 반세자·세손의 흥론을 주창해 왔던 친정 가문을 보호하는 길이자 가문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었다. 게다가 단정할 수 없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은전군 이찬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후일을 도모할

계획이었다.

사도세자 폐위와 북당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순왕후의 결정은 일정 부분父子 간의 이간 행위를 줄곧 해왔던 화완옹주와 숙의 문씨의 역할이 한몫했다. 세자·세손 부자를 음해하는 세력과 연합한 이들은 각기 양자 정후겸과 친오빠 문성국을 표면적으로 내세워 각 시기와 상황에 따라 양 척신 또는 주도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처신을 달리했다. 세 명의 왕실여성은 대체적으로 반세자·세손의 행보였다.

혜경궁 홍씨는 세손 보호에 적극적이었다. 그녀는 아들 세손과 시아버지 영조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도록 도왔다. 또한 그녀는 혈연관계를 통해 정순왕후·화완옹주와 친분을 쌓고 자신을 주축으로 친정인 풍산 홍씨 집안과 경주 김씨·연일 정씨 집안을 연결해 주는 교섭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막후 활동은 자신과 아들의 안위를 보장받고 궁극적으로 아들을 왕으로 올리는 데에 있었다. 영조 후반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이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왕실여성 4명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컸다고 하겠다.

정순왕후와 혜경궁 홍씨의 행보는 성공적이다. 정순왕후는 남당의 계획에 동참해 사도세자를 폐위시키고 북당의 정권을 한동안 와해시켰다. 혜경궁 홍씨는 왕실 가족인 영조, 정순왕후, 화완옹주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모자의 우호 세력을 확보했다. 반면 화완옹주와 숙의 문씨의 행보는 성공 반, 실패 반이었다. 세자를 죽게 한,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매우 컸다. 얼마 안 있어 혜경궁 홍씨의 소원대로 아들 세손은 왕위에 올랐고 풍산 홍씨 가문의 명예는 다소 회복되었다.

※ 이 논문은 2024년 02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2월 28일부터 0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사료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2. 논저

권오영, 「金漢祿(1722~1790)의 사상과 정치적 驛程」, 『조선시대사학보』 33, 조선시대사학회, 2005, 201~244쪽.

金龜柱 著·成均館大學校大同文化研究院 編, 『可庵遺稿』,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김영민, 「영·정조대 풍산 홍봉한 가문의 부흥과 분열」, 『사학연구』 100, 한국사학회, 2010, 139~177쪽.

김용흠 외 역주, 『사도세자의 죽음과 그 후의 기억 『玄臯記』 번역과 주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김용흠 외 역주, 『충역의 시비를 정하다 『定辨錄』 역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정자, 「영조말~정조 초의 정국과 정치세력의 동향-영조 46(1770)경~정조 원년(1777)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4, 조선시대사학회, 2008, 37~102쪽.

김치인 등 역음·김경희, 김광태 옮김, 『(국역)명의록』, 민족문화추진회, 2006.

金漢祿 著·韓國文集編纂委員會 編, 『寒澗先生文集』 6, 경인문화사, 1993.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國朝寶鑑』, 민족문화추진회, 1995.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2009.

박 주, 『조선왕실여성들의 삶』, 국학자료원, 2018.

신채용, 「영조대 탕평정국과 駙馬 간택」, 『조선시대사학보』 51, 조선시대사학회, 2009, 135~169쪽.

양응렬, 『조선의 왕비 가문』, 역사문화, 2014.

延日鄭氏世譜所, 『延日鄭氏世譜』 上, 回想社, 1981.

- 유봉학, 「18·19세기 노론학계와 산림」, 『한신논문집』 3, 한신대학교 출판부, 1986, 23~46쪽.
- 이근호, 「영조대 탕평파의 국정운영론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근호, 「18세기 후반 혜경궁 가문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조선시대사학보』 74, 조선시대사학회, 2015, 35~73쪽.
- 이미선, 「1749년(영조 25) 和緩翁主와 鄭致達」, 『고려사학보』 58, 한국사학보, 2015, 217~247쪽.
- 이미선, 「영조 후궁 暎嬪李氏의 생애와 위상」, 『역사와 담론』 76, 호서사학회, 2015, 121~160쪽.
- 이이화, 『朝鮮黨爭關係資料集』, 驪江出版社, 1983.
- 임혜련, 「19세기 수렴청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임혜련, 「영조~순조대 惠慶宮의 위상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74, 조선시대사학회, 2015, 75~107쪽.
- 정만조, 「혜경궁의 삶과 영조대 중·후반의 정국」, 『조선시대사학보』 74, 조선시대사학회, 2015, 7~33쪽.
- 차장섭, 『조선후기문벌연구』, 일조각, 1997.
- 최봉영, 「임오화변과 영조말 정조초의 정치 세력」,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217~293쪽.
- 최성환, 「영조대 후반의 탕평정국과 노론 청론의 분화」, 『역사와 현실』 53, 한국역사연구회, 2004, 45~73쪽.
-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혜경궁 홍씨 작·정은임 교주, 『한중록』, 이회, 2008.
- 黃胤錫, 『頤齋亂藁』 3책; 4책; 7책; 8책,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1998; 2001; 2002.

Abstract

Political actions and Role of the Royal family females, during the Latter half of King Yeongjo's reign

Lee, Mi-Sean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the political roles and actions of four different females of the Joseon Royal family,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reign of King Yeongjo(英祖). First of all, Queen Jeongsun(貞純王后) the Kim(金氏) willingly joined the plans laid out by the *Nam-dang*(南黨) party, and only after the *Gabshin*-year order(*Gabshin Cheobun*, 甲申處分) actively helped the Crown-prince's son to ascend to the throne. Her actions were influenced by other females like *Hwa'wan Ongju*(和緩翁主, also known as “*Jeong'cheo*, 鄭妻”) and *Sug'ui Mun*(淑儀文氏, also known as “*Mun'nyeo*, 文女”), who wanted to create a rift between the father(Crown-prince Sado/思悼世子) and his son. Both females had Jeong Hu-gyeom(鄭厚謙) and Mun Seong-guk(文聖國) respectively serve as their proxies, and cooperated as well as allied themselves with powerful in-law household members[*Cheokshin*, 戚臣] or any faction which wanted to badmouth the Crown-prince and son. These three females had interests that were squarely against them, and steered in various directions as they saw fit to achieve such goal.

Crown-princess Hye'gyeong-gung the Hong was on the other hand very protective of the Crown-prince's son, as that son was also hers. After her husband's death she got her son and his grandfather King Yeongjo to emotionally bond, and acted as an intermediary between her maiden house and the Gyeongju Kim house and Yeon'il Jeong

house. Queen Jeongsun and Crown-princess Hong were in the end both successful. Queen Jeongsun was able to strip Crown-prince Sado of his power while dismantling the *Puk-dang*(北黨) regime, whereas Crown-princess Hong was able to put his son on the throne and reinstate her family's honor. *Jeong'cheo* and *Mun'nyeo*, however, were not so successful. It was half a victory and half a failure for them, considering the price they had to pay for causing the Crown-prince's death.

keywords :

Queen Jeongsun the Kim, Crown-princess Hye'gyeong-gung the Hong, *Jeong'cheo*(鄭妻), *Mun'nyeo*(文女), Order of the *Gabshin*-year(Gabshin Cheobun, 甲申處分)

